

사적 계시(私的 啓示)

그리스도교 2000년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나 예수님, 또는 성모님이나 다른 성인을 보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성모님의 발현과 관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성모님 발현지로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계시를 공적 계시라 한다면, ‘발현, 환시, 들음, 예언 등과 같은 현상을 통해 개인에게 전해진 계시’를 사적 계시라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계시 헌장, 4항)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적 계시들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개선’ 하거나 ‘보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는” (가톨릭 교회교리서, 67항)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적 계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교도권을 통해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고 충실히 해석” (계시 헌장, 10항)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에, 사적 계시들에 대한 판단과 해석, 그리고 그 진실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떠한 사적 계시들에 대해 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시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는 단지 그 계시가 신자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사적 계시 중 어떤 것들이 교회의 권위로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그것들은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67항). 즉, 사적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것임을 의미한다.

분명히 해 보자. 어떠한 사적 계시에 대해 교회가 인정하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시를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 그 계시들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더 굳게 하며,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적 계시를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적 계시에 대해 교회가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적 계시를 받아들이거나 믿지 말아야 한다.

[2015년 6월21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브랜든 존스톤 (키모), 정황자 세실리아 /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선우 유스티노의 영혼을 위하여	김화연 이시돌	생	장호길 요한 비엔나의 본명축일 영육간 건강을 위해	이종만 모세
연	김영욱 고복남 요안나의 영혼을 위하여	김수산나	생	주모니카 델피노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전 율리안나
연			생	소피아 존 건강을 위하여	한소피아

자	전 려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8월4일(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1,290.00 \$ 1,191.00
8월5일(수)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오전 7 : 30	교구 원 캠페인 토요 특전	\$ 100.00 \$ 100.00
8월6일(목)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70.00 \$ 90.00
8월7일(금)	연중 제18주간 금요일	구역미사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 26.00 \$ -
8월8일(토)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오후 7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 \$ 2,867.00
8월9일(일)	연중 제19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5~6 이진행 6월 이돈수 7월 김형진 이재덕 이경희 지영욱 최재진 안기창 송민자 7~8월 정훈 황성연 이정규 8월 엄규홍 이재성 7월~9월 장애익 11~12월 김용욱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세례예식**

- ◆ 8월 16일(일) 교중미사 중
- ◆ 화요일 교리반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세요.

**3. 봉성체(병자 영성체)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부제님
-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 ◆ 8월 7일 (금) 환자 봉성체 있습니다.

**4.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 ◆ 일시 8월 2일(주일) 11시 미사 및 오후 1시 30분
- ◆ 주제 : 우리 삶 껴 안기
- 특별 강론에 참여해주세요 영적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5. 8월 구역모임 안내 - (금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구역	장 소	7월
1	8일(토) 오후 6시 Nisenan Community Park	19명
2	8 (토) 오후6시 30분. 몽고리안 BBQ 집	18명
3		20명
4	9일(일) 미사후 안젤모방	6명
5	9일(일) 미사후 요한방	20명
6	14일(금) 오후 7시 성당 정자	16명
7	7일(금) 저녁5:00 김파스칼 (덕)	10명
8	7일(금) 오후 7시 원형일 마카엘 (덕)구역미사	12명
9	8일(토)오후6시. 임상일 프란체스카 & 베로니카(덕)	15명
10	8일 (토)오후4시 장수영 스테파노(덕)	20명

**6. 지구 사제 모임 - 8월 5일 (수요일) 트라이벨리 성당**

**7. 축하합니다. Fiat 장학생 선발**

- ◆ Cather ine Kim(김귀태 안셀모, 김은영 프란체스카)

**8.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서 작성자는 총 85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100)	\$38,545.00

**9.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여성부 보 조 :신부님 이호순 수산나(\$200)
- ◆ 다음주 점심봉사 : 2구역 보 조: 요셉회 (\$200)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1,88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2,115	244,594단

성당 Wi Fi가 새롭게 작동합니다

연결 시그널 : SacKcc\_WiFi 패스워드 : abcde12345

**모임안내**

: 2일(일) 미사 후 친교실

- ◆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성당 골프회 정기모임 - 9일(일) 1시 30분 엠파이어 골프코스
- 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 16일(일) 1시 엘리사벳 방
- 사목회 : 23일(주일) 1시 엘리사벳 방

**주일 /한글학교**

**● 북가주 6개 한인 성당 청소년 하계 캠프 안내**

- ◆ 날짜 :8월 7일 -9일 (2박 3일)
- ◆ 대상 : 중,고등학생 (2015년 9월 기준 7학년-12학년)
- ◆ 참가 인원 파악 및 준비를 위해 온라인 접수 신청 필수
- 주일학교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 ◆ 문의:이시래 베아타(919)749-0632/장선영 스킨스타티카367-3363

전례 봉사	08월 2일	08월 9일	08월 16일	08월 23일
해 설	이혜련 (데 레 사)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 리 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1 독 서	윤재경 (알베르토)	김형일 (안드레아)	김상범 (히지노)	황성연 (안토니오)
2 독 서	윤은실 (비비안나)	오한빛 (수산나)	기은희 (마리아)	황정숙 (아 바)
복 사	김재열 (스테파노) 이대원 (베드로)	김민규( 다미아노) 윤여훈 (로마노)	윤성훈( 가브리엘) 송돈희 (요 셉)	양경민 (안드레아) 류승교( 바오로)
/기도/청소	1FE~2F0	1FE~2F0	1FE~2F0	1FE~2F0
헌금 위원	전비아, 김미애	이나숙, 정의주	송돈희, 임상일	장석자, 고원석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b>최병엽공인회계사</b> Paul Choi&amp;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b>신세계 여행사</b> 80 Grand Ave. #202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7495</p>
<p><b>한국위성방송</b>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b>FARMERS</b> <b>배정순 종합보험</b>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b>지도</b> <b>(Creative Art Class)</b>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4</p>	<p><b>에어컨 수리</b> <b>(Air Conditioner)</b>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b>East WestTravel</b> <b>(동서여행사)</b>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b>부동산 · 용자</b>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b>제인 안 변호사</b> 파산법 전문 (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b>서은미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b>Exigo ITSolutions</b> <b>컴퓨터 수리</b>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a href="mailto:support@exigoits.com">support@exigoits.com</a> web add.:<a href="http://www.exigoits.com">www.exigoits.com</a> ☎ (916) 287-1439</p>	<p><b>1.2.3AutoBody/정비</b>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b>JIMMY KIM</b> <b>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 보아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b>ShoGun Sushi</b>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b>Law Office of</b> <b>Daniel S. Lee</b>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a href="mailto:danleelaw@gmail.com">danleelaw@gmail.com</a> ☎(916)922-0107</p>



#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 비 오 )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탈출기 16:2-4,12-15 제 2 독서 에페소서 4:17,20-24 복 음 요한 6:24-35

화답송: 시편 78(77), 3과 4ㄱ e, 23-24, 25와 54 (◎24ㄴ 참조)

화답송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생명의 빵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너 성스러운 나의 고독이여 / 너는 잠에서 깨어나는 정원처럼 / 너무도 풍요롭고 순수하고 드넓구나. // 너 성스러운 나의 고독이여 / 온갖 소망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 너의 황금의 문을 닫아라.”

‘고독과 방랑의 시인’이라 불렸던 릴케의 ‘너 성스러운 나의 고독이여’라는 시입니다. 릴케는 고독을 ‘성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움은 신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고독이 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독이 성스럽다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독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계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하느님과 단 둘이서만 만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는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그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릴케가 말했듯이 ‘황금의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부터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 그 안에는 얼마나 좋은 보화들이 많이 들어 있겠습니까? 릴케는 고독의 정원을 ‘너무도 풍요롭고 순수하고 드넓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보화들을 발견하고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황금의 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대문 바로 앞에는 인간의 온갖 욕망들이 우글거리며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의 정원 안에 있는 보화들을 훑쳐가기 위해서입니다. 고독의 정원은 처음에는 분명 외롭게 느껴집니다.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황금의 문을 수시로 열어젖힙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 들어오려고 줄지어 서있던 소망들이 안으로 밀려들어 와서 고독의 정원을 약탈해 버립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상 중에 순간적인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외롭고 힘들면 황금의 문을 열어버리고 바깥으로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고, 갖가지 유희와 오락에 몰두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과 흥분들이 나를 외로움과 불안에서 구해줄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는 하느님과 머무는 고독의 시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볼 멘 소리를 합니다.

하느님은 고독이라는 공간을 통해 나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기만 하면 금방 황금의 문을 열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소망과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위로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지금보다 더 강한 자극을 통해 끝없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를 쫓아갈수록 나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그러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바깥 세상의 것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줄 것이라는 환상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황금의 문을 닫아걸고 외로움을 일구어서 고독의 정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황금의 문을 꼭 닫아 두면 외로움은 풍요로운 고독의 정원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수시로 문을 열어버리면 늘 황폐한 외로움의 공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결코 목마르지 않을’ (요한 6,35 참조) 생명의 양식은 고독의 정원에서 쏟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예전 본당 김기환 요셉 신부

### 영혼의 창고

영혼의 창고에는  
소리가 필요 없고  
모습도 필요 없고  
가난한 마음 만으로



유경환 클레멘스·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화가

장  
종  
지

---

---